

결혼과사랑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결혼과사랑
1910 년

결혼과사랑에관한일반관념은그것이동의어이고같은동기로부터 생겨나며, 같은인간의욕구를커버한다는것이다. 대개의통속관념과같이이역시사실이아니라미신에근거하고있다.

결혼과사랑은공통점이없다. 그것들은마치극과극처럼떨어져있다. 사실, 서로적대적인것이다. 물론어떠한결혼은사랑의결과였다. 그러나사랑이결혼을통해서만그자신을긍정할수있기때문이라고말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대부분의사람이습속을전혀벗어나지못하기때문이다. 결혼은별볼일없는것이지만단지여론때문에그것에순종하고있는남녀가오죽많이있다. 어쨌든어떤결혼은사랑을토대로하고있는것도사실이고, 또그사랑이결혼한뒤에도계속되는경우가있는것도사실이지만, 나는그것이결혼과는무관하게그렇게되는것이지, 결혼덕분이라는주장을하고싶지는않다.

반면, 사랑이결혼에서비롯된다고하는것은완전히거짓이다. 극히드물게부부가결혼한뒤사랑에빠진다는기적적인현상을듣기도하지만, 자세히살펴보면피할수없는것에대한단순한적응에불과하다는사실이 밝혀질것이다. 상호간에점차생겨나는사랑은자발성, 강렬함, 사랑의아름다움과같은것들에서멀리떨어져있으며, 그러한것들의결여는남녀모두에게반드시모욕적인것임이증명될수밖에없다.

결혼은주로경제적합의, 보험계약과같은것이다. 일반적인생명보험계약과다른점은그것이단지보다더구속력있고까다롭다는것이다. 투자대비수익은미미하다. 보험에가입하는사람은보험금을일시에많이납입하든아니면조금씩나누어납입하든, 혹은언제든자유롭게납입을도중에중지할수도있다. 그러나만약여성이한번결혼보험에가입하면자신의이름, 사생활, 자존심, 심지어목숨까지도‘죽음이갈라놓을때까지’바쳐평생남편을위해납입해야한다. 더욱이결혼보험은여성에게평생의중속을선고하여개인적으로도공적으로도전혀쓸모없고기생하는존재가되게한다. 남성역시결혼세를지불하지만여성보다그의영역이넓어짐에따라결혼이여성에게만큼그를제한하지는않는다. 남성은그는경제적인의미에서자신의사슬을더많이느낀다.

이리하여단체가말한지옥의문에새겨진글귀가결혼에동등한힘으로적용된다. “여기들어오는자, 모든희망을버려라.”

결혼이실패라는것은웬만큼바보가아닌이상은부인하지않을것이다. 이혼통계를훑어보면누구나결혼이얼마나쓰라린실패인지를분명히볼수있을것이다. 또이혼법이느슨해지고여성이점점문란해지고있다는틀에박힌팔레스타인식주장도다음과같은사실을설명하지는못할것이다. 첫째, 결혼은열둘에하나, 이혼으로끝나고있다. 둘째, 1870 년이래, 이혼의수가인구 10 만명에대해 28 퍼센트에서 73 퍼센트로증가하였다. 셋째, 1867 년이래이혼사유로간통의수가 270.8 퍼센트증가했다. 넷째, 버려지는일이 369.8 퍼센트증가했다.

이러한놀라운통계에더해이문제를소재로다루는문학희곡이많이있다. 로버트헤릭의 『Together』, 피넬로의 『Mid Channel』, 유진윌터의 『Paid in Full』 그리고이외에도많은작가들이결혼의건조함, 단조로움, 비열함, 불만족등을들고, 조화와이해의요소가결여되어있다고논하고있다.

사려깊은사회학연구자들은이런현상에대해대중적이고통속적인변명으로는만족하지않을것이다. 그는결혼이왜그렇게비참한지를증명하기위해바로양성의생활에더깊이파고들어야할것이다.

에드워드카펜터는모든결혼뒤에는두성별의일생에걸친환경이자리잡고있다고말한다. 서로너무나다른환경이기때문에남성과여성은서로타인으로남게되는것이다. 극복할수없는미신, 관습, 습관의벽으로분리된결혼은서로에대한지식과존중을발전시킬수있는잠재력을지니지못하며, 그것이없는모든결혼은실패할수밖에없다.

모든사회적허위를증오하는헨리크입센 (Henrik Ibsen) 은아마도이위대한진리를실현하고자했던최초의사람이었다. 노라가그녀의남편을버린다 — 그것은어리석은비평가들이말하는것처럼그녀가자신의책임에권태를느끼고여성의권력이필요함을느꼈기때문이지아니라, 그녀가8년간생면부지의남과생활하며아이를낳았다는것을자각했기때문이다. 일면식도없는두사람이평생에걸쳐친밀한관계를만들어나가는것보다더비열한타락이있을수있을까. 여성은남편의수입이외에남편에대해서는아무것도알필요가없는것이다. 또남성이여성에대한지식이라고하는것은그녀가마음에드는표정을짓고있다는것 이외에는아무것도없다. 우리는아직여성에게는영혼이없다는신학적신화, 남성의부속품에불과하다는신학적신화에서나가지못했는데, 그는자신의그림자를두려워할정도로강인한남성의편의만을위해그의갈비뼈로만든것이다.

아마도여성이열등하다고하는것은여성이만들어진재료의성질에책임이있을것이다. 어쨌든여성에게는영혼이없다 — 여성에대해서알아야할것이무엇이있을까? 뿐만아니라여성에게영혼의분자가적으면적을수록아내로서의가치가커지고, 더욱쉽게남편과동화될수있다는것이다. 오랜기간이른바결혼제도라는것을보존한것은이남존설男尊說에대한맹종적인목인으로, 이제여성은진정으로주인의은혜에서벗어난존재로서스스로를자각하기시작했다. 그리고신성한결혼제도는점점훼손되고있으며어떤감상적탄탄도그것을막을수없다.

일반적으로딸들은어려서부터결혼이그녀의최종목표라는말을듣는다. 따라서그녀의훈련과교육은그목표를향해야만한다. 말못하는동물이도살을위해살찌워지는것처럼그녀는이를위해준비된다. 그러나이상하게도, 그녀가아내나어머니로서의직무에대해알게끔허락된것은보통직공들이그작업에대해야는것보다아주적다. 훌륭한소녀가결혼관계에대해야는것은무례하고야비하다는것이다. 오, 그존엄의모순때문에결

혼서약을 필연적으로 불결한 것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신성한 결정으로 바꾸어, 누구든지 과감히 그것을 묻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히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미래의 아내와 어머니는 성녀라는 경쟁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유일한 자산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 그리하여 그녀는 한 남성과 평생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인 섹스에 의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격분하고, 분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혼 생활의 불행, 불행, 괴로움, 육체적 고통의 상당부분이 큰 미덕으로 찬미받는 성문제에 대한 죄악적 무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개탄스러운 사실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멸로 끝을 맺었다고 내가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성이 충분히 자유롭게 성장하여 국가나 교회의 허가 없이 성의 신비를 배울 수 있다면, 그녀는 “좋은” 남성의 아내가 되기 전에 전혀 부적절하다며 하여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좋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머리와 많은 돈에 불과하다. 생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건강하고 성장한 여성이 자연의 요구를 거부하고, 가장 격렬한 욕구를 억제하고,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망가뜨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좋은”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을 아내로 데려가기 전까지 성경험의 심오한 영광에서 버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이다. 이 같은 조합이 실패가 아니면 무엇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것은 비록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혼의 한 요소로서, 결혼을 사랑과 구별짓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실제적인 시대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 부모님의 분노를 무릅쓰고서 서로 사랑하고, 그레첸이 사랑을 위해 이웃들의 소문에 스스로를 드러냈던 시대는 지났다. 설령 드물게 젊은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로맨스에 빠져들어도, 그들은 연장자의 감시를 받고, 그들이 ‘성품이 좋아질’ 때까지 훈련을 받고 짓이겨진다.

소녀에게 주입되는 도덕적 교훈은 남성이 ‘어떻게’ 그녀의 사랑을 불러 일으켰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사랑을 불러 일으켰느냐하는 데 있다. 남성에게 경제력이 있을까? 그가 아내를 부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실제적 미국 생활의 중요한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결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것이 점차 모든 소녀의 사상에 침투한다. 그의 꿈은 달빛과 키스도 아니고 웃음과 눈물도 아니다. 그녀는 쇼핑 투어와 할인 판매대를 꿈꾼다. 이러한 영혼의 빈곤과 비도덕성은 결혼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다. 국가와 교회는 다른 어떤 이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단지 남녀를 지배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는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독립을 재촉받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하다. 그 거대한 원동력에 의해 움직여진 놀라운 만큼의 여성 지위의 변화는 여성들이 산업의 각 축장에 들어온 이래 얼마나 근소한 시일이 지났는

녀는 그것만이 여성이 진정한 남성과 여성의 건설을 돕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입센이 훌륭한 솜씨로 알빙부인을 묘사했을 때, 그는 자유로운 어머니의 환상을 보고 있었을 터림없다. 그녀는 이상적인 어머니였다. 그녀는 결혼과 그 모든 공포를 극복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사슬을 타파하고, 그녀의 자유로운 정신을 고양시켜 재생되고 강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치솟게 했다. 아아, 그녀의 삶의 기쁨인 오스왈드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자유로운 사랑이 아름다운 삶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늦지 않았다. 알빙부인처럼 피와 눈물을 대가로 치러 정신적 각성을 얻은 사람들은 결혼을 허위, 천박, 공허한 모욕으로 여겨 부인한다. 그들은 사랑이 단 한번의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든 혹은 영원히 지속되든 그것이 새로운 종족,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고무시키고, 고양하는 유일한 기초임을 알고 있다.

피그미족처럼 왜소한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사랑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다. 오해와 기피로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어쩌다 우연히 뿌리를 내려도 곧 시들어 버린다. 사랑의 섬세한 섬유질은 날마다 갈기갈기 찢기는 압박과 긴장을 견딜 수 없다. 그것의 영혼은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 사회 조직의 끈기 있는 씨실에 스스로를 적합하게 할 수 없다. 사랑은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탄식하며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그 절정에 오를 능력 결여되어 있다.

언젠가, 언젠가는 남성과 여성이 일어나 그 최고봉에 도달할 것이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해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받을 준비를 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사랑의 황금빛을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화려하고 상상력 넘치는 어떤 시적 천재가 남녀의 삶에서 그러한 힘의 잠재력을 대략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을까. 만약 세상이 진정한 교제와 온정을 낳는다면, 결혼이란 사랑이 부모가 될 것이다.

지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600 만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600 만명의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도둑맞고, 파업하고, 심지어 굶고 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 그렇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최고 두뇌 노동에서 광산 또는 철도 노동, 아니, 탐정 및 경찰에까지 종사하는 600 만명 여성 임금노동자. 확실히 해방은 완료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성 임금노동자 중 극소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남성과 같은 관점에서 영구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남성은 아무리 노쇠해도 그는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오, 나는 어느 누구도 우리 경제적 발판에서는 진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구나 가장 불쌍한 남성 표본도 기생(寄生)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고, 아니 적어도 기생한다고 알려지는 것을 증오한다.

여성노동자는 자기의 지위를 임시적이라고 생각하여 맨처음 입찰자에 의해 내던져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것이 남성보다 여성을 조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다. “내가 왜 조합에 가입해야 하지? 나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거야.”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그녀의 궁극적인 소명으로 간주하도록 배워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녀는 가정이 비록 공장과 같이 큰 감옥은 아니라고 해도 한층 견고한 문과 빗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정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충실한 파수꾼을 가지고 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가정이 더 이상 임금노예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단지 그녀의 일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제출된 “노동, 임금, 인구집적”에 관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노동자 중 기혼자는 겨우 그 10% 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 끔찍한 현상이 가정의 노역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보호와 영광에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사실 결혼한 중산층 소녀조차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녀 주변을 만들어내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짐승인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은 오직 남편의 은혜만므로 여성에게 가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년 그녀의 인생과 생활에 대한 면모가 그녀의 주변 환경처럼 평평하고 좁고 칙칙해질 때까지 남편의 집을 돌아다닌다. 그녀가 잔소리하고, 웅크리고, 시비 걸리고, 험담하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 남자를 집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녀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인들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바깥 세상에 대해 절대 무능한 것으로 변한다. 그녀의 외모에 부주의해지고, 동작은 추해지고, 결정을 의존하게 되며, 판단에 겁이 많아지고, 뚱뚱해지고 지루해지며 대부분의 남성이 미워하고 경멸하게 된다. 삶을 이어가기에 아주 몇 분 위기가 아닌가?

그러나 만약 결혼이 없다고 하면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은 아닐까? 무슨 허위이자 위선적인 말인가! 결

혼이어린이를보호한다고해도가난하고집없는어린이수천명있지않은가. 결혼이아이를보호해도고아원과소년원은넘쳐나지않는가. 그리고 아동학대방지협회는항상‘사랑하는’부모로부터작은희생자를구해내고 그들의부모보다더욱친절한아동보호회의손에그들을두려고노력하고 있지않는가. 아아, 이무슨모욕인가.

결혼은“말을물가로데려갈”힘을가지고있을지도모른다, 그러나말에게물을먹일수있는힘은가지고있지않다. 법률은아버지를구속하고그에게죄수의옷을입힌다. 그러나그것이어린이의배고픔을가라앉힌적이 있는가? 부모가직장이없거나신분을숨긴다면그때결혼은어떻게되는가. 결혼은그남자를“재판”으로데려오기위해, 그를안전하게문안에가 두기위해법을발동한다. 그러나그의노동은어린이가아니라국가에도움이 된다. 어린이는그저아버지의옷가지에대한아련한기억을가지게될뿐이다.

소위여성의보호에대해서는 — 그곳에결혼의저주가깃든다. 결혼은진정그녀를보호하지않을뿐만아니라보호라는생각자체가이미혐오스러워할만한것이다. 이와같은것이실로인생을유린하고모욕하며인간의존엄성을떨어뜨리는것이다. 이기생적제도는영원히물아내야만한다.

그것은마치다른부성에적방식인자본주의와같다. 그것은인간의타고난권리를빼앗고, 성장을방해하고, 인간의몸을오염시키며, 인간을무지와가난과의존속에있게하고, 그런뒤인간자존심의마지막흔적에영위하는자선을조직한다.

결혼이라는제도는여성을기생충으로, 절대적으로의존적인존재로만든다. 결혼은삶의투쟁에대해여성을무력화시키고, 그녀의사회적의식을말살시키고, 상상력을마비시킨다음, 그자애로운보호를강요하는데, 이는진정올가미이자인간성에대한희롱이다.

만약모성이여성의본성을가장잘충족시키는것이라면, 사랑과자유를이외에어떠한보호를필요로하는가? 결혼은여성의완성을유린하고, 화나게하고, 타락시킨다. 결혼은여성에게“네가나를따라올때에만너는생명을낳으리라”라고말하지않는가. 만약여성이자신을팔아모성애를사는것을거부한다면결혼은그녀를헐뜯고욕되게하지않는가. 결혼은설령여성이증오와강박에의해임신하는일이있어도모성애를재가하지않는가. 그러나만일모성애가자유로운선택, 사랑, 황홀, 치열한정열의결과라면, 결혼은무고한머리위에가시관을씌우고피로사생아라는무서운단어를새기지않는가. 만약결혼이그것에대해주장된모든미덕을포함한다면, 모성애에반하는범죄는결혼을사랑의영역에서영원히추방시킬것이다.

인생전반에걸쳐가장강하고깊은요소인사랑, 희망의전조, 기쁨의전조, 황홀감의전조, 모든관습의반향, 사랑, 인간운명의가장자유롭고가

장강력한형성자인사랑. 이렇게모든것을압도하는힘이어떻게국가와교회가낳은잡초, 즉결혼과동의어가될수있겠는가?

자유로운사랑? 마치사랑이자유이외의것인양말한다! 인간은많은지혜를샀지만, 전세계수백만명은사랑을사는데실패했다. 인간은육체를정복했지만지상의모든권력도결국사랑을정복할수는없었다. 인간은온나라를정복했지만, 그의모든군대는사랑을정복할수없었다. 인간은정신을쇠사슬로묶고족쇄를채웠지만사랑앞에서는전혀속수무책이었다. 왕좌에높이올라, 황금으로명령할수있는모든화려함과화려함을가졌더라도사랑이그를스쳐지나간다면그는외롭고처량하다. 사랑이있는곳은가장궁핍한오두막에서도생명과색채로따뜻하게빛나고있다. 이리하여사랑에는거지를왕으로만드는마법의힘이있다. 그렇다, 사랑은자유인것이다. 사랑은자유이외의어떤대기에서도살수없다. 오직자유에서만사랑은자신을충분하고완전하게부여할수있다. 사랑이한번부리를내리면우주의어떤법률도, 어떤법정도흙에서그것을뜯어낼수없다. 하지만만약땅이불모라면결혼은어떻게과실을수확할수있겠는가. 그것은죽음과맛서는덧없는삶의마지막필사적인투쟁과같다.

사랑은보호가필요없다. 그것은그스스로보호한다. 사랑이생명을얻는한, 어떤아이도애정결핍으로버려지거나, 배고프거나, 굶주리지않는다. 나는이것이참인것을알고있다. 나는그들이사랑한남성들에의해자유롭게어머니가된여성들을많이알고있다. 그러나어떤어린이라도자유로운어머니가줄수있는주의와보호와헌신을향락하는것은어려울것이다.

권위를옹호하는사람들은자유로운모성애가그들의먹잇감을빼앗을까봐두려워한다. 누가전쟁을하겠는가? 누가부를창조하겠는가? 만약여성이어린이의무차별양육을거부한다면누가순경이되고간수가되겠는가? 종족, 종족! 왕과대통령과자본주의자, 사제가외친다. 비록여성이단순한기계로전락하더라도, 종족은보존되어야한다 — 그리고결혼제도는여성의해로운성성의각성에대한유일하게안전한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속박상태를유지하기위한이러한광란의노력은허사였다. 역사교회의칙령, 통치자들의미친공격, 법의팔조차소용없다. 여성은더이상가난과노예제도의명예를벗어던질힘도, 도덕적용기도없는병들과, 미약하고, 노쇠하고, 비참한인간들의종족생산당사자가되고싶지않다. 대신에여성은결혼이그러한것처럼강요에의해서가아니라, 사랑과자유로운선택을통해더적은수의더 나은아이들을원하고있다. 우리의사이비도덕주의자들은자유로운사랑이여성의가슴속에서깨운아이에대한깊은책임감을배워야만한다. 멸망과죽음만을숨쉬는대기속에서생명을낳기보다는, 차라리여성은모성의영광을영원히버릴것이다. 그리고만약엄마가된다면, 그것은아이에게여성의존재가양보할수있는가장깊고최고의것을주는것이다. 아이와함께성장하는것이그녀의좌우명이다. 그